

안동권씨 제주특별자치도 종친회 창립



권오한 회장

2018년 7월 31일 오후 5시 안동권씨 제주특별자치도 종친회가 제주시 삼무로 하워드 존슨 제주호텔 연동 3층 다온홀에서 성황리에 공식적으로 창립되었다. 이날 종친회 발기인 대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족친 70여명이 참석하여 종친회 창립을 축하하였다. 족친들은 창립준비위원장 권오한(복아공파, 35세) 목사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권오한 회장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안동권씨 족친들은 승조정신을 받들어 애국 애족하여 권문의 위상을 드높이고 후손들에게 선조의 얼을 심어주자”고 힘주어 강조했다. 이어서 권오한 회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안동권씨 종친회 회장단을 임명하여 종친회 활동의 진흥 구축을 완료하였다. 수석부회장에는 권인창 오대양종합상사회장, 부회장에는 권영복 ㈜나소건설대표, 권오민 통나무집로고앤하우스대표, 권호근 축성제세소대표, 권갑순 정관장대표, 권영희 전오페라리대표, 권창희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시티회장, 권희정 확산농산회장, 권태성 인켄전자통신(주)대표, 권대성 오성농장대표, 권서호 ㈜제주아침대표를 각각 선임하였다. 또 총무에는 권영희 부회장, 부총무에는 이사 권진환 (유)티비에스 개발대표, 재무와 서기에는 권대성 부회장을 겸직으로 각각 임명하였다. 안동권씨 대종회 권해국 회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종친회 창립에 크게 기여한 권오한 회장에 공로패를 수여하였고, 부회장에게는 권해국 대종회 회장과 권오한 창립위원장 공동명의로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권해국 회장은 축사에서 “안동권씨 제주특별자치도 종친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족친들이 권오한 회장을 중심으로 승조정신을 실천하며 서로 화합하면서 크게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대종회에서 권율도원수 행주대첩기념행사를 국가행사로 격상시키는 100만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으니 제주 족친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주에 거주하는 족친들은 안동권씨 종친회가 처음으로 발족되자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로 그 기쁨을 함께했다. 창립식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안동권씨 제주특별자치도 종친회 창립에 산파역을 담당한 권오한 초대 회장은 제주 연동교회 목사로서 바쁜 일에도 불구하고 족친들을 발 벗고 찾아다니며 두 차례에 걸친 준비모임 등을 통해 족친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었다. 또한 권인창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많은 족친들도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적극적으로 창립 준비에 동참하였다. 창립 준비 중에 권오



권오한 회장(왼쪽)에게 공로패 수여

한 회장은 대종회와 수시로 연락하면서 지원을 요청하였고 대종회에서는 그때마다 적시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안동권씨 제주특별자치도 종친회가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왔다.

안동권씨 제주특별자치도 종친회가 창립됨으로써 전국의 안동권씨 지역종친회는 2018년 8월 1일 현재 총 61개가 되었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종친회 창립을 발판으로 앞으로 아직까지 지역종친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새롭게 발굴하고 지역종친회를 발족시켜 대종회의 외연을 확대시키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권오한 회장>

안동권씨 전국 지역종친회장협의회 임시회 및 단합대회



권영호 회장

전국 지역종친회장협의회(회장 권영호) 임시총회가 8월 27일(월) 16시부터 28일 14시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광안리 해수욕장 해변에 위치한 이쿠아펠리스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권태형 간사의 사회로 시조남계 망배, 상음례를 한 다음 권영호 협의회장의 지명에 따라 참석자 모두가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다. 대종회에서 권해국 회장과 권건중 사무총장이 참석하였고, 지역종친회장협의회 회원은 권영호 회장을 비롯하여 26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불과 얼마 전에 발족한 제주특별자치도 종친회 권오한 회장이 처음 참석하였고, 단양지역종친회(권봉석 회장)도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또한 내년 전국 청장년체육대회를 주최하는 부산청장년회 권갑수 회장과 권도영 준비위원장 그리고 권옥순 부녀회장도 참석하여 내년 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니 전국 지역종친회장협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하기 위해 회의를 찾았다.

권영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길고 지루한 열당 무더위를 무릎쓰고 지역종친회를 이끌어 오신 각 지역 회장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지난 4월 제4대 협의회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지역종친회장간 친목 도모를 위해 부족하지만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 말했다. 권해국 대종회 회장은 “참석한 지역종친회장 모두와 모임을 주최



한 협의회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종사 발전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면서, 8.26 이치대첩기념제 봉행과 안동 역사박물관 건립 등 대종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행주대첩기념제를 국가행사로 격상하는 100만 서명운동을 지역종친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올 내 말까지 최소한 1만 명을 확보하여 청와대에 건의서를 제출하자”고 말했다. 협의회 권갑상 고문은 “종친회의 제1덕목은 돈독임을 강조하고 서로 우애와 진심으로 서로 위하는 바람직한 단체로 승승장구하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피력하였다.

임시회 의안 토의시간에 일부 회원들은 내년 5월에 개최 예정인 대종회 총회를 청장년체육대회가 열리는 부산에서 개최하는 것은 어떨까는 의견을 제시했다. 각 지역회장단이 거의 참석하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하는 효과도 있는 만큼 내년 총회는 부산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건중 사무총장은 10월에 대전에서 개최되는 효부리문화축제에 각 지역에서 되도록 많이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아울러 10월 18일부터 3박 4일간 중국 권현민 묘소 참배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 이후에는 부산회관에서 저녁 만찬이 이어졌다. 회원들은 만찬 후에 전원 유람선에 승선하여 해운대 등 부산 앞바다의 야경을 구경하는 것으로 첫날 공식일정을 마무리했다. 28일 이튿날에는 광안대교, 북항대교, 남항대교 등을 조망하고 송도해수욕장에 위치한 케이블카에 탑승하여 바다와 도시가 어우러진 멋진 부산의 경관을 만끽했다.

회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자주 만나서 안동권문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지역종친회장협의회를 활성화 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권해국(대종회 회장), 권건중(사무총장), 권영호(부산), 권태형(마창진), 권갑상(고문), 권승구(마포), 권오한(제주도), 권정걸(안양), 권만집(상주), 권계수(창녕), 권성덕(영덕), 권경관(금산), 권순중(통영), 권영근(밀양), 권오영(봉화), 권영하(영등포), 권병후(수원), 권영복(산청), 권재덕(진주), 권영갑(전 수원회장), 권종화(광주), 권오신(전주, 완주), 권주연(안동), 권용기(대전), 권태복(복천), 권창구(원주), 권봉석(단양), 권호협(제천) 등 이상 28명이다. <부산총회 사무국장 권재영>

능곡회 창립 32주년 기념행사 개최



안동능곡회(慶谷會: 회장. 권기호)는 8월 8일 오후 6시 안동시 옥동 광명로 '청포도 민속주점'에서 능곡회원과 역대 능우회장 및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능곡회 창립 32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32년 전 능곡회원 시절이었던 현 능우회(慶優會) 회원을 초청, 능곡회 창립일을 되새기면서 우의(友誼)를 돈독(敦篤)히 하고 두 회원 간의 끈끈한 정을 되살리기 위해 모였다. 능곡회원은 참석한 능우회원 가슴에 일일이 꽃을 달아주는 등 포근한 형제애를 느끼게 했다.

권순익 능곡회 사무국장의 사회에 따라 시조묘소 망배(望拜), 상음례(相音禮)를

하였다. 권기원 능우회장은 축사에서 “안동지역 청 장년 35명이 주축이 되어 창립한 능곡회가 벌써 32년이 되어 감개무량하고 특히 권택기 전 국회의원(서울 광진구)이 시조묘소 태사공 훈. 추 향사 때 운반할 제물봉송(祭物奉送) 손수레를 제작, 능곡회에 기증하기도 했다”며 당시를 회고하였다. 권기호 능곡회장은 인사말에서 “선배님들이 이룩해 놓은 훌륭한 능곡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것”을 다짐했다. 능우회 2대 회장을 역임했던 권영준 박사(전 국립안동대 교수)는 축사에서 “다른 성씨들은 청 장년회를 중심으로 뭉쳐져 있으나 안동은 안동능곡회를 주축으로 뭉쳐져 있으며 안동권

씨 전국청 장년체육대회의 모태(母胎)가 되어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동권씨 전국체육대회 때 현재 일본은 참가하고 있지만 앞으로 중국, 미국에 살고 있는 안동권씨도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사상 권문(權門)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네 가지 일 즉 ‘권문의 사시(匹夫)’가 있으나 현대에 들어와서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했다. 첫째 시조 어른의 묘소를 지키고 있으며 둘째 안동권씨는 단일 성씨로 전국에서 열한 번째이고 인원이 70여만 명이라는 사실”이 자랑거리라고 주장했다.

축사가 끝나자 곧 이어 능우회 권영건 초대회장과 대종회 권오익 사무부총장이 각각 건배제의를 하고 저녁식사를 하였다.

지난 1986년 8월 8일 안동권씨 능곡회가 창립되면서 초대 회장에 권영삼씨(현 변호사)를 선출, 회원 35명으로 발족한 능곡회는 현재 회원이 113명에 이르고 있다. 능곡회원이 능우회에 가입하자면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어야만 된다. 현재 능우회원은 22명이다.

능곡회는 ▲능동제사 훈. 추 향사(享祀) 참여(參禮) 및 제물봉송(祭物奉送) ▲안동권씨 전국청 장년 체육대회 참가 ▲능동고택 음악회 ▲보학강좌 ▲회원단합대회(산행, 율놀이)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보도부장 권영건>

우향계 춘향제 봉행



무술년(戊戌年) 5월 31일 (음력 3월 18일) 안동시 성곡동 우향사(友鄉祠)에서 우향계원(友鄉契員)이었던 5대 문중인 안동권씨(安東權氏), 고성이씨(固城李氏), 영양남씨(英陽南氏), 흥해배씨(興海裴氏), 안강노씨(安康盧氏) 등 후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향제(春享祭)를 봉행(奉行)하였다.

어제는 봄비가 내리는데 오늘은 바람이 심하게 불어 강풍주의보까지 내려 춘향제를 봉행하는데 참제원(參祭員)이 쓴 우건(楸木)과 제석(祭席)이 바람에 날아가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권오주(權五柱)가 분정(分定)을 담당하여 헌관, 제관들이 보는 가운데 50여 분에 걸쳐서 분정이 이루어졌다. 초헌관(初獻官) 권오수(權五秀), 아헌관(亞獻官) 배중희(裴重熙), 종헌관(終獻官) 남정진(南政鎭), 축(祝) 권기진(權奇鎭), 찬자

(贊者) 이승일(李承一)이 각각 담당하여 엄숙하게 진행하였다.

춘향제례(春享祭禮)를 약 1시간에 걸쳐 마치고 우향각(友鄉閣)으로 자리를 옮겨 우향각 마루와 앞마당 잔디밭에서 음복례(飲福禮)를 하였다. 헌관(獻官)과 제관(祭官)은 우향각 큰방과 마루에서 참제원(參祭員)들은 잔디밭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으면서 환담(歡談)을 나누었는데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식사하는데 다소 불편을 겪기도 하였다.

우향각 마루에는 남윤환(南潤煥) 독약(讀藥)이 50년 전부터 내려오는 향약(鄕約)을 10여 분간 낭독하기도 했다. 해마다 제례(祭禮) 주관(主官)은 5개 문중(門中)이 윤번제(輪番制)로 돌아가면서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안동권씨가 주관하였으며 내년에는 흥해배씨가 주관한다. 이날 점심시간 때 권영세 안동시장, 권

광택 안동시의원이 인사를 하기 위해 우향각을 방문하여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였다.

우향계(友鄉契)는 지금으로부터 540년 전 조선 성종 9년(1478)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우향계를 기념하고 창립 회원 13명의 위패(位牌)를 모시기 위해 지난 2004년과 2006년에 건립한 각(閣)과 사당(祠堂)이 지금의 자리에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선비들의 계회(契會)로 서로에게 덕업(德業)을 권하고 친목(親睦)을 도모(圖謀)하며 풍화(風化)를 밝히기 위해 결성되었다. 세종(世宗) 때 좌의정(左議政)을 역임한 고성이씨(固城李氏)인 이원(李源)의 아들 이증(李增)이 안동에 낙향하여 안동권씨 3명, 영양남씨 4명, 흥해배씨 4명, 안강노씨 1명 등 13명이 우향계를 조직하여 계첩(契帖)을 하나씩 나누어 가진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 당시 어지러운 사회상(社會相)을 바로 잡고 생활의 규제를 담은 계안을 만들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당시 조정의 원로이자 문장가인 서거정(徐居正)이 장편의 7언(言) 고시(古詩)를 지어 축하(祝賀)하기도 하였다.

우향계(友鄉契) 회원 중 우리 권문(權門)에서는 정 9품 무관(武官)인 사용(司勇) 권자겸(權自謙), 정 9품 무관(武官)인 사용이고 증직(贈職)이 이판(吏判)인 권곤(權琨), 창립을 주도(主導)하다가 타계(他界)하신 사정(司正) 권개(權珪)의 자별시위(別侍衛) 권숙형(權叔衡)이다. <보도부장 권영건>

서울산악회 정구산행 안내 (제287차)

- ◆ 일 시 : 2018년 9월 16일 오전 10시(매월 3주째 일요일)
- ◆ 등 산 지 : 우면산
- ◆ 집결장소 : 지하철 2호선, 4호선 사당역 1번 출구
* 시간 엄수 바랍니다.
- ◆ 준 비 물 : 도시락 지참바랍니다.

회 장(권중훈): 010-4037-6656 등반대장(권오준): 010-3718-4204
사무국장(권병길): 010-5359-8188

2018년 9월 1일

안동권씨서울산악회 회장 권중훈

서울마포종친회 월례회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화목·건강·행운이 함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마포종친회(월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 일 시 : 2018년 9월 27일(목) 오후 7시
- ◆ 장 소 : 우가촌(가마솥설령탕) 02-702-5047, 010-5358-2840
- ◆ 오시는길 : 지하철 5호선 공덕역 5번 출구 · 지하철 6호선 공덕역 6번 출구
→ 공덕오거리 → 르네상스타워(옆) → 우가촌
- ◆ 연 락 처 : 회장 권승구 02-718-8437, 010-6271-8437
총무 권경탁 010-3796-4047

2018년 9월 1일

안동권씨 마포종친회 회장 권 승 구